



[산업]
광주 GGM 조립공장
전기·수소 등
생산 유연성 갖춰
08



Life

[중소·중견]
삼흥열처리
“세계 최고 품질
뿌리산업 관심을”
L6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 쿠팡의 ‘사람 중심’ 상생 행보



241 쿠팡



쿠팡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일자리 취약 계층과의 상생에 전력을 다해 눈길을 끌고 있다.

강한승 쿠팡 대표는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골목상권 침체 논란에 대해 “소상공인과의 상생은 우리 사업에서 앞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상생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소상공인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강 대표는 18일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3분기 주요성과와 하반기 전략 과제 공유를 위해 연 타운홀 미팅에서 다시 한 번 상생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강 대표는 “쿠팡의 파트너 가운데 80% 이상이 중소기업”이라며 “쿠팡과 함께 사업을 운영 중인 중소기업의 수가 전년과 비교해 2배로 늘고 임점 중소기업의 매출 또한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올해 전국 물류 인프라 확대에 약 1조2000억원을 투자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고객감동 서비스를 동시에 잡았다. 18일 임직원 타운홀 미팅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쿠팡은 올해 9월까지 약 1만 개에 달하는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냈다. 쿠팡은 지난해에도 국민연금 가입자수 기준 2만5000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국내 민간 부문 최고 기록을 세운 바 있다. 이러한 쾌거는 물류배송직원 ‘쿠팡친구’를 본사가 직접 정직원으로 고용하면서 나타난 효과다.

택배기사는 개인사업자로 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같은 고용형태는 사실상 본사가 택배기사에 대한 보호나 처우 개선 책임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를 줬다. 그러나 쿠팡은 배송직원과 물류센터 직원을 직고용하고 업계 최초로 배송직원 건강관리 프로그램인 ‘쿠팡케어’를 도입함으로써 업계 선도하는 근무환경을 갖췄다. 쿠팡의 이러한 행보는 동종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쿠팡은 신규 채용에 있어 취업 취약계층인 여성과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을 우선채용하면서 이들이 갖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여성 쿠팡케어센터’ 운영을 통해 여성 물류 직원들이 겪을 수 있는 고충을 상담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과 조직문화 개선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 중이다.

쿠팡은 직원의 성장과 전문화도 지원 중이다. 쿠팡은 10월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



쿠팡은 18일 전국에서 근무 중인 쿠팡친구들을 격려하기 위해 전국 70여 개의 배송캠프에서 보양식 밀키트를 전달하는 치얼업데이(Cheer Up Day)를 진행했다.



쿠팡은 18일 충청남도 부여군과 부여군청에서 ‘지역 우수 농특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정해운 쿠팡 리테일 디렉터(사진 왼쪽)와 박정현 부여군수(사진 오른쪽)가 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17년부터 5년째 쿠팡친구로 근무 중인 김가영(53)씨. 유튜브 ‘뉴스룸 채널’에 출연한 김씨는 쿠팡에 대해 “인생 마지막 직장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쿠팡

전국 물류 인프라 확대에 1.2조 투자 지역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 효과

취업 취약계층·지역주민 우선 채용 교육 등 쿠팡의 물류 전문화 도와

지자체들과 지역 농특산물 판로 개척 소상공인 판매 돕는 ‘쏟아마켓’ 운영도

업인력공단에서 주최한 ‘2021 사업내 자격검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2019년 사업 내 자격검정 인증제도인 ‘CS배송전문가’를 도입해 국내 최초 배송 관련 자격증을 신설했다. 쿠팡은 직무교육을 제공하고 직무이론, 운전이론, 운전실기 등 테스트를 통과한 쿠팡친구에게 CS배송전문가 자격증을 발부하고 추가적인 교육과 테스트까지 거치면 ‘CS배송전문가 시니어’를 준다. 자격증과 교육 제공을 통해 쿠팡은 쿠팡친구들의 물류 전문가로서의 성장을 돕고 있다.

쿠팡은 올해 4000억원에 달하는 상생 지원금을 조성하고 지역 농어민과 소상공인들의 판로 확대에도 앞장서고 있다. 지난

18일 쿠팡은 충청남도 부여군과 지역 우수 농특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쿠팡은 2019년 3200억원 투자를 골자로 대구와 업무협약을 처음 맺는데 이어 부여군에 이르기까지 14곳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지자체와 업무협약은 물류센터 건립을 포함해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까지 포함한다.

쿠팡에 따르면 11월 현재 쿠팡에서 거래하는 판매자 10명 중 8명은 소상공인으로 이 중 70%는 지방에 거점을 둔 판매자다. 지난해 소상공인이 올린 매출은 총 6조 3000억원에 달하며 한해 소상공인 판매자 수는 매년 50% 이상씩 늘고 있다. 올 2분기 중소기업의 상품 수는 전년 동기 대비 81% 증가했고 3분기에는 276% 증가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쿠팡은 지역과 소상공인의 성공이 곧 쿠팡의 성공으로 보고 아낌없이 지원을 이어나가고 있다.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초기 적응 지원 및 교육을 제공하고, 마케팅 및 행사 활동 등을 지원하며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쿠팡은 12월30일까지 서울지역 소상공인 우수상품을 한 곳에 모아 판매하는 ‘쏟아마켓’을 진행한다. 쏟아마켓은 오프라인

판매를 주력으로 하던 서울지역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와 한국생산성본부가 함께 하는 기획전이다.

10월에는 경상북도경제진흥원과 함께 지역 영세,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2021년 경북세일페스타 온라인 판로지원 상품 품평회’를 개최했다. 지난 3월 경주시, 6월 경상북도 김천시, 7월 전라북도 전주시에 이은 4번째 중소기업인 온라인 판로 지원 상품품평회였다. 품평회에서 쿠팡은 참가자들에게 직매입 로켓배송 입점 방법을 자세히 안내하고 카테고리별 브랜드 매니저가 온라인 판매를 위한 마케팅, 홍보 등 실질적인 노하우를 전수했다.

박대준 쿠팡 신사업부문 대표는 “고객은 쿠팡을 통해 전국 소상공인과 농수축산인들의 품질 좋은 우수한 제품들을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게 되었고, 중소기업인들은 쿠팡에 대한 고객 신뢰를 바탕으로 더 많은 판매의 기회를 얻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중소기업인들이 쿠팡에서 도전과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역 투자와 상생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맨유 차기 감독 누가 될까... ‘지단은 일단 관심 없다’ BBC 보도
▲ 이스탄불 더비서도 빛낸 김민재... “2골 막은 승리의 주역” 찬사 /사진 뉴시스

▲ KBO, 나성범 등 FA 자격선수 19명 공시...26일 교섭 시작
▲ 감독 경질, 코치 복귀...IBK기업은행의 선택은 옳았을까



▲ 신유빈, 세계선수권서 험난한 대진표...3회전서 1위 천명 만날 듯 /사진 뉴시스
▲ 광주시체육회·선관위 잘못해 회장 당선 무효...혼란 빠진 체육계